

# 모든 견해 내려놓으면 그곳이 불국토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과에 얽매어서, 가고 머무름에 자유를 잃게 된다. 깨달음(菩提) 등의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정토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 놓고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여 국집하게 되고, 국집하면 인과에 구속되어 괴로움이 발생한다. 본래 당처에는 증생은 물론 부처도 없고, 생사는 물론 열반도 없다. '있다, 없다' 하며 분별하는 것은 다만 허물을 짓는 것이지, 실상을 밝히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말도 부득이 해서 하는 것으로, 그 실체는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체득한다는 것도 한 번 흘린 것만 가지고는 여기 배후처럼 힘이 약해서 경계 따라 차별된 모습에 자꾸 달리게 된다. 따라서 한 번 본 후에도 계속 정진하며 세월을 잘 보내야만,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안목을 얻을 수 있다.

여래의 설법은 모두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마치 누런 잎사귀를 돈이라 하여, 우는 아이의 울음을 억지로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서는 다양한 근기에 응하여 자비심으로 부처니 중생이니, 보리니 열반이니 하며 온갖 말로 설교해 놓으셨다. 이런 방편 설법을 보며 뭔가 반박했다더라, 그것은 입제스님이 얘기한 삼구법문(三句法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삼구에서 깨치면, 스스로도 제도 못한다.'고 한 것이다.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도록 집지 설명해 놓은 것을 이해하여 그 말을 배워 익힌다고 해서, 입구(一句)의 낙처를 알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확 풀리지 않는다. 아무리 잘 이해해도, 그것은 생각 속에서 알음알이를 짓는 것이어서 결국 다시 답답해지고 만다. 구름이 겹쳐야 청산이 드러나듯이, 알음알이의 밀착이 한 번 확 터져야 한 법도 세울 수 없는 그 자리가 명백히 드러나는 법이다. 조사들이 시설해 놓은 관문인 조사관(祖師關)을 뚫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명하고 확실하게 전도몽상에서 깨어나는 길이다.

그러므로 실로 법이라 할 것이 없음을 일러 아늑보리라 하니, 지금 이미 이 뜻을 알았다면 어찌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다만 인연 따라 목은 업을 독일 뿐 다시 새로운 제양을 짓지 않으면, 마음속은 밝고 또 밝아질 것이다.

번뇌는 본래 허망한 것이어서, 다만 사라지면 그뿐이지 따로 법이라고 세울 게 없다. 번뇌가 없으면 따로 보리라 할 것도 없다. 본래 청정하여 얻을 게 없음을 일러 위(巍)에 비르고 평등한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즉 아늑다라 삼막삼보리라 하고 하였다. 이 뜻을 알아듣고 더

## 수불 스님의 안릉록 선해 (24)



범이사 주지

번뇌는 본래 허망하여 다만 사라지면 그뿐이지 법이라고 세울 게 없다. 본래 청정해 얻을 게 없음을 무상정등각이라 했다.

중생은 상(相)을 좋아하여 애지중지하는 것을 붙잡아 결코 놓으려 하지 않는다 불국토에 들어가려면 모든 견해를 놓아야 한다.



그림 · 박구원

이상 부처니 깨달음이니 하는 말에 속지 말고 다만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인연 따라 목은 업을 독일면서 세월을 잘 보내다보면, 나날이 마음속이 밝아져서 기필코 오늘 보다 나아진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견해를 모두 버려야 한다.

이미 깨달아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알아들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알음알이를 채우려하지 말고 기존에 붙잡고 있던 모든 악지악각(惡知惡覺)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마음 비우고 살면 그것보다 가벼운 게 어디 있겠나?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머리하면서 밖으로 머리를 찾아 헤매지 말고, 단지 이 마음을 인연 따라 잘 쓰면서 임응등등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유마거사가 말했다. '가진 것을 없애 버렸다.' '법화경'에서 말했다. '20년 동안 늘 뜻을 치게 하였다.'

중생은 상(相)을 좋아하여 각각 애지중지하는 뭔가를 붙잡고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로 그것이 내세나는 똥인 것이다. 장자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나, 오래 전에 집을 나간 아들은 거지생활을 너무 오래하여 본래 자기 집인 이 부자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중생이 무상(無相)의 본지공공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법세나는 똥인 상(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다

다. 그래서 지혜로운 장자는 거지 아들로 하여금 먼저 번소에서 똥을 치우게 하였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걸렸다는 것이다.

오로지 마음속에 지은 바 견해를 없애도록 하라. 또 말씀하시기를, '화론(戲論)의 똥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래장은 본래 스스로 공적(空寂)하여, 한 법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 경에 말씀하셨다. '모든 불국토 역시 텅 비어있다.'

가장 내세나는 똥은 마음속에 지은 견해다. 희론의 똥인 법상(法相)이 아마도 제거하기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중생은 그것이 곧 진리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고 익혀서 얻은 것은 모두 희론의 똥이다. 진정한 보물은 밖에서 본어는 것이 아니다. 똥가 밖에서 배우려고 본성의 집을 나가 떠도는 모습이 곧 거지요 외도다. 우리 모두는 본래 장자의 아들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췄었다는 이 뜻을 알아채야, 비로소 조잡한 외도의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불조께서 한결 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수용해야 비로소 불법 공부가 바른 방향을 잡고 진행될 수 있다. 실로 이 대목이 바른 공부의 갈림길이다. 유마거사가 분명히 말했다. '모든 불국토 역시 텅 비어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국토에 들어가려면, 모든 견해를 놓아야 한다. 만일 진정으로 내려놓는다면, 선 자리가 즉각 불국토로 화할 것이다.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 자기 장점 드러내고 타인 장점 숨기면...

(범망경)

#### 원효를 위한 변명

"원효스님,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기로 할까?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가령, "좋아해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하자.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자. "어떤 점이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우리나라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널리 알려진) 스님이 원효 스님이라는 데에는 이견(異見)이 별로 없을 것이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떤 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일까?

사실은, 우리 불교가 원효 스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원효 스님이 가장 널리 알려진 데에는, 어쩌면 그가 파계를 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요석공주와의 사이에 아들 설총을 낳았다는 것 말이다.

그렇다. 그는 분명 그랬다. 그리고서는 스스로 "소성(小姓)거사"라 자칭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원효가 있다. 그가 파계했다고 해서, 그에게는 지계 의식(持戒意識)이 없었던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파계를 했기 때문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다른 어떤 스님들보다도 더 깊은 지계의식을 갖고 있었다.

지금 전하는 저술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원효는 몇 권의 중요한 계율관계 저술을 남기고 있다. 고백하자면, 나는 원효 스님 글을 읽은 것이 별로 없다. 다만 몇 권의 책을 편독(編讀)을 했을 뿐인데, 그것들은 모두 계율관련 저서이다.

하나는 그의 참회록이라 할 수 있는 <대승육장참회(大乘六情懺悔)>이고, 다른 하나는 보살계와 관련한 논문이라 할 수 있는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이다. 이 중에 특히, 내가 좋아하는 글이 <보살계본지범요기>이다. 그 제목의 뜻은, "어떻게 하면 보살계를 지킨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범한 것이 되는가에 대한 요점 정리" 정도가 될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계율

놀랍도다. 원효의 안목이여! 놀라운 것은, 그가 보살계의 총 58개조나 되는 계율 중에서 단 하나의 계율만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안목이 높다는 것은, 그가 "불자찬취타계(不自讚毀他戒)"를 가장 중요한 계율(第一戒)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불자찬취타계는, <범망경>의 보살계본에서는 10가지 무거운 계율 중의 일곱 번째이다.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을 대신

하여 욕됨을 당할 것이며, 나쁜 일은 자기에게 향하게 하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할지이다. 자기의 장점(德)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숨겨서는 아니된다."

한마디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계율이다. 원효는, 어찌 보면 간단할 것도 같은 이 계율의 의미를 해석하느라 책을 한 권 집필했던 것이다. 도대체, 도대체, 왜? 그는 이 계율을 그렇게 중시했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구함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사상은 결코 삶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효는 결코 자기 삶을 떠나서, 경전을 읽지 않았다. 자기 삶과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불교교단을 모두 헤아리면서 경전을 읽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뒷날 "화쟁(和諍)국사"라는



그림 · 박구원

호(號)가 주어졌다. '국사'는,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삶과 사상을 '화쟁'으로 정리한 데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화쟁! 그렇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 역시 화쟁이다. 어떻게 화쟁을 이룰 수 있을까? 또한 과연 무엇이 화쟁을 방해하는 것일까? 이 물음 앞에서, 원효는 그 해법을 '자찬취타계'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를 높이고 칭찬하며 남을 비방하는 것 말이다.

보라! 싸우는 사람들도... 언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실, 그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저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들 훌륭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어디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그런데 우리의 자아의식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 "나는 훌륭하고, 남들은 나보다 못하다" 밀하리라 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 무주상 보시한 불자님,

강원도 동해안 조그마한 암자 향운암은 약사기도 도량으로 불자님의 심신의 건강과 기도 정진의 귀의처였으나 진입 통행로의 임야를 경기도의 어느 재력가가 2억 미만에 매입하여 약 8억 원에 매입을 하라고 해서 너무 고액이라서 매입이 못한다고 하니 진입 통행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철조망으로 폐쇄하여 출입이 불가능 하였으나 매월 일정금액을 지금까지 무주상 보시한 불자님들의 간곡한 성원으로 법원 승소 판결 및 산주의 협조로 진입로 소통 및 일부 포장까지 하였습니다. 무주상 시주한 불자님의 연락을 꼭 바랍니다. 항상 불은이 함께 하시길 부처님전에 기원합니다.

향운암 대응전이 퇴락하여 대응전 중창 불사를 발원 합니다.

향운암에 원기동 10개 대들보 2개가 있으면 중창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사가 원만히 회향 할 수 있게 불자님들의 동참을 발원합니다.

심신의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 곳을 전전 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동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약사기도 도량 약수가 있고 약속 뜸 식이요법 및 요양으로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상담 및 방문 바랍니다.

여생을 절에서 생활 하실 분1인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양주 구함. 노보살님(복심 있는 분)

연락처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496-4

향운암 주지 무진

☎ 033) 532-1773. 010-2873-2888

## 영남범패학인 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3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래

#### <진주교육원>

- \* 입교일시 :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사가 406호
-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 다루는 법
- \* 수강자격 : 식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 문의전화 : ☎ 055)747-8419
-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 호법봉사단원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중산 선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중산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려하나마, 불법 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 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범행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 진장사(建將寺)

누워서 머리품·베에는 단전똥·앉아서 좌훈똥·편안히 무릎들 악성피부·아토피·버거씨병·파킨스병·통풍·관절·무릎·고통·통증·허리디스크·협착증·건선·수족냉증·비염·황토·상황·훈증·좌훈·썩똥·침대 (특허번호 제 10-2011-011722호)

대구 수성구 두산동 82번지 진장사(스님은 무보시 치료) 011-573-4438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 新 영성 향상법

제 1기 수련회원 모집 (스님, 재가자 환영)

회원대상 영성의 수준을 높여 불법 포교와 평안을 찾아 활기찬 인생을 살려는 분.

수련기간 2014년 1월 21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3개월간 (하루 2시간씩, 18시 ~ 20시) 선착순 10명

수련내용 순수자각 - 행복감 솟아나게 하기 연습. 영성중심 기증 세우기 실습. 웨이스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 - 듣는 명상 실습.

학습내용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피링론 캔 윌버의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코스몰로지(우주생명관)의 확립을 위하여 연구론과 6바라밀의 실천 구르지에프의 다중 아이덴티티와 셀프 리메이팅론 화이트 이글의 힐링과 실버버치의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이리타 히테오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법 감동비, 공감비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 세로토닌학 등

레이키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정통성 있는 레이키 교육단체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010-8392-2557 www.reiki.co.kr / e-mail : reiki@reiki.co.kr